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산물 기술 보급
경진대회 '우수상'

정읍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1년 식량작물 및 안전 농산물 기술 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농진청 기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식량작물과 안전 농산물 기술 보급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시상상을 통해 관계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가운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8개 기관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전북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밭작물 기계화 증대 기술 보급으로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경영 개선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고구마와 콩 등 밭작물의 세척과 선별 기술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유통 확대 등의 사례를 발표해 사업의 충실성·효과성·적시성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고창군이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67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운영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인삼 품목은 오는 26일까지다. 오디, 복분자,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품목은 12월 3일까지 재해보험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

농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전북도와 고창군에서 30%를 지원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20%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정책 추진 '온 힘'

정읍시, 청년 중심·청년 체감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심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읍시 청년정책위원회'가 16일 정읍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읍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소통과 정책 제안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청년이 소외당하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다각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청년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나아가 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백정록 청년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쉽고 가깝게 청년정책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22년부터 2026년에 걸친 정읍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내년도 정읍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특히 교육·일자리·주거·혼인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해결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부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지원 조건에 대한 태도를 다지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헛갈리는 민원 서식, QR코드로 똑딱'

정읍시, 민원 서식 작성... 대기시간 단축

앞으로 출생·사망신고 등 비특수 혼인·이혼신고 등의 민원업무가 대폭 수월해진다.

정읍시는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행정 신고를 위해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쉽게 민원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다고 15일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해 편리하게 민원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민원 서류 작성 시 여러 사람이 작성예시를 한 번에 보기 힘들고, 대부분 필기대 하단에만 작성예시가 부착돼 있어 누군가 작성하고 있으면 뒷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출생·사망신고와 출생·이혼 신고서 등 작성할 일이 많지 않은 민원 서식은 작성에 어려움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이에 시는 민원 서식 작성예시 견본 이미지와 민원 사무편람, 담당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해 시청과 23개 읍·면·동 민원실에 부착했다.

QR코드는 ▲토지이동(합병·분할·지목변경)신청서 ▲부동산거래약정서 ▲인간검증서발급위임장 ▲여권신청서 ▲여권 법정 대리인 동의서 ▲개명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 12종으로 필요한 민원 서식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서류작성 견본과 구비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활용으로 민원실 어디서나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어 서식 작성시간과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나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현장 방문

유기상 고창군수가 16일 오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현장(고창읍 월산창고)을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고창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포대벼)은 451톤으로 전년대비 238톤 늘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수광으로 이달말까지 고창군 정부양곡창고 29개소에서 매입이 진행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

사하는 수확기(2021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결정된다.

매입대금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수매한 즉시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나머지 차액은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수매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수매포장재(40kg, 80kg)는 농식품부 고시 규격의 새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영숙 국제로터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회장이 지난 15일 제8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일반봉사부문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

박영숙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회장, 행복나눔봉사대상 수상

박영숙 국제로터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회장이 지난 15일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일반봉사부문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시시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나눔봉사대상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가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제고와 행복자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영숙 회장은 평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사회단체 생수 릴레이 무료 나눔 봉사를 통해 투철한 봉사정신과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에 모범을 보여왔다.

박영숙 회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봉사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박영숙 회장의 꾸준한 봉사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변함없이 주변의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 부안이 따뜻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고 축하했다.

한편 국제로터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은 "봉사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자 라는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필품 전달 및 위안잔치,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의료봉사 실시, 타국에 와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문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및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등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의장 문찬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정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오는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부안군이 시행하는 중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계수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경기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 선별 관련 및 이송 방법 대처 방안', 이한수 의원은 '요소수 보관에 따른 판매제도 방안 제시', 김광수 의원은 '병품 변상비실질을 위한 제안'을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